

2024년 6월 27일 설교자 회의

본문 : 민수기 9장 15-23절

제목 :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

대지 : 1.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2. 순종으로 누리는 은혜

1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인 40장 34-38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는 성막 위를 덮은 구름에 대한 이야기와 성막에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으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백성을 이끌어 보호하시며 시내까지 이끌고 온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시내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여행길에 어떠한 기준으로 인도를 받아서 가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 구름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으로부터 떠오르면 백성들은 서둘러 구름을 따라 이동했고, 구름이 멈춘 자리에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 하셨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은 히브리 구약성경의 이름인 **בְּרֵאשִׁית**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이름에서 알수있듯이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기록입니다.** 이들이 걸어갈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의 광야길은 멀고 험한 길입니다. **낮에는 뜨거워 숨조차 쉬기 힘들며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그늘조차 없는 곳입니다. 반대로 밤이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곳이 이스라엘이 걸어가야할 광야였습니다. 이런 기후 조건과 그들을 노리는 적들(출 14:19-20)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구름기둥을 통해 갈 때를 알려주시고 멈출 때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가고 서는 순종이었습니다.**

2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고있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기록들을 보면,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광야에서의 자신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홍해에서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완성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자신들이 갈곳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표현했습니다. **나의 길이 어렵고 두렵게 느껴질 때, 오늘 말씀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문장 :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합시다.

참고 : WBC주석, HOW주석, 묵상과설교

본문 : 민수기 14장 26-38절

제목 : 하나님의 계획, 당신의 선택은?

대지 : 1. 이스라엘이 걸어간 불순종의 길
2.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순종의 길

1

지난 주 본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반대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벌하심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온 12명의 정탐꾼들은 10명과 2명의 두 무리로 나뉘어져 대립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온 이스라엘 회중이 10명의 정탐꾼의 입장, 그곳 백성들이 강하여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에 대해 악평하는 것에 동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거부하는 말까지 뱉어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대로 그들 스스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2절)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거라고(29절)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에 대해 후회하는(3절) 백성들에게 너희는 들어갈 수 없으나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을것이라고(30절)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특정하신 것에는 앞서 1장에서 계수하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세 이상은 싸움에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겁을 먹어 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눈 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 다시 돌아가야하며, 결국 그들 자신은 그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2

10명의 정탐꾼은 왜곡된 보고로 이스라엘 회중을 선동하였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들에게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죽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의 정탐기간을 하루에 1년으로 계산해 40년간의 광야생활을 하게 됩니다. 서서히 죽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는 다른 40년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광야의 죽음이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끝은 약속의 성취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14장 24절에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וְיִתְּנָהּ לָהֶם אֱלֹהִים)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다른 영이 그와 함께 있다'입니다. 다른 정탐꾼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라는 말처럼 수많은 선택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문장 : 수많은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자.

참고: 엑스포지멘터리, 묵상과 설교, HOW주석

본문 : 민수기 21장 4-9절

제목 : 절망 중에 마주한 생명의 길

대지 : 1. 원망이 가져온 결과
2.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홍해길이 위치한 아라바광야는 해발고도가 바다보다 낮아 바란광야나 신 광야보다 덥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들 중 노약자는 이미 탈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은 걸어가고 있지만, 50°C가 넘어가는 아라바 광야의 여정속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원망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아랏왕을 이기고 반나절만 더 올라가면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는데, 돌아가라고 하시니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목적지를 앞두고 돌아가야 하는 그들이 불만을 내뿜는 것은 새롭거나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찮다며 강하게 비하하고 있는 음식은 하늘의 떡이며, 예수님의 모형(요6:35)인 만나였습니다. 만나를 비하하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시며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지목하며 불평을 쏟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불만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먹을 양식을 공급해주셨지만, 이제는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만 내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징계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잘못을 뉘우치며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결과를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데 그것들은 잊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해 진다면, 우리의 영혼 역시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2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저 고통 중에 계속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뱀을 장대에 달았고, 뱀에 물려 죽게된 자마다 이 장대의 뱀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생명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받게되는 구원을 예표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요3:14-15절 말씀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고난 중에 불평이 먼저입니까? 그 불평은 더 큰 불평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 우리 영혼을 갇아 점점 더 고통 속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로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가장 좋은 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문장 : 불평을 벗고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자.

참고 :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 엑스포지멘터리, HOW

본문 : 민수기 27장 12-23절

제목 : 바톤 터치

대지 : 1. 지도자 교체

2. 믿음의 전수

1

길고 긴 40년의 광야 생활이 드디어 끝무렵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건너 요단 동편 모압평지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바림 산지의 정상 느보산에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곳은 해발 843미터에 높은 산으로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요단 동쪽 뿐만 아니라 요단 강너머 서쪽까지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온 모세에게 감격의 순간이자, 안타까움의 순간이 동시에 찾아 온 것입니다. 그는 프리바에서의 사건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한 이 그릇된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 목자로 세워 40년을 이끌어 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릇되게 행할 때마다 그들을 가르치고, 돌이키도록 권면할 지도자가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크게 방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곁에서 오랫동안 수행한 내정자가 있음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종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하십니다.** 아론의 후임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입회하에 모세의 지도권은 여호수아에게 위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 지도자가 누구이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에 의해 진행 될 것입니다.**

2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자교체는 단순히 권력의 이동이 아니라 믿음의 전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경험을 통해 얻은 믿음을 여호수아에게 전수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믿음의 전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신명기 6:7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의 삶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이끌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교회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본을 보이며, 다음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신앙의 전수는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모범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 속 모든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보여줌으로 우리는 주변에 믿음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삶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다음세대에게 전수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전수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문장 :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이어갈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합니다.

참고 : HOW주석, 묵상과 설교, 엑스포지멘터리